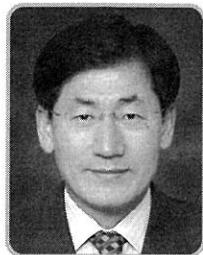


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



이 성 우
(주)이지팜스 대표이사

'80년대 중반 사료회사에 입사 했을 때의 일이었다. 선배들과 회식 자리에서 곡물 파동으로 사료 구매를 위해 사양가들이 사료 포대에 현금을 가득 담아와서 사료를 서로 달라고 했던 그 때가 좋은 시절이었으며, 지금은 영업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했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.

그 동안 사료·축산업계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? 'IMF' 구제 금융 위기, 'FTA'의 확대, 구제역 발생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 왔으나,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현재에 와 있다.

현재 사료산업은 성숙기를 지난 상태로 국내 축산 경기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전 축종이 어렵고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. 오랫동안 열심히 양돈업만 하신 사장님을 만났을 때 일이다.

“사장님, 요즘 많이 어려우시지요?” 라고 말씀 드렸더니 “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.

어려움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겠지. 내가 농장에서 열심히 하고 생산성을 올리면 반드시 극복 할 수 있어!” 라고 말씀 하셨다.

정말로 든든하고 희망이 느껴지는 말씀이셨다. 사료·축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반드시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드려야 할 일인 것 같다.

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축산시장은 예전의 경험처럼 호황이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을까? 글로벌 경쟁 시대에 FTA 등의 확대에 의하여 국내 축산 농가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시세 결정 주도권이 수입 축산물로 넘어갈 때도 시세가 상승하면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?

영양소 과잉 섭취 시대에 인간 수명 100세가 현실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 성인병의 주범으로 생각되는 축산물은 지속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을까?

이러한 문제들을 자문해 보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

한 시기인 것 같다.

결국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야 축산업계 전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그러기 위해서는 첫째, 국내 사료·축산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존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윈윈(Win-Win)할 수 있도록 경쟁의 틀을 변경하여야 하겠다.

둘째, 국제간의 무역 자유화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수입 축산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축산물 개발 및 마케팅에 전력을 집중하여 수입 축산물의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수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.

셋째, 100세 시대에 맞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기능성 물질을 강화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의약 등 관련업체와 융합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는 건강 산업으로 변화하여야 하겠다.

마지막으로 사료·축산업이 힘들고 환경 오염이 심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이종 장기 생산 등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서 후배들에게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다.

이를 위해서는 사료·축산 및 관련업체가 협력하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준비를 시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다. ☒